

시즌 초반 '빅볼' 대세 홈런 풍년



프로야구 2008시즌 초반 홈런이 쏟아져 나오면서 '빅볼'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9일까지 진행된 37경기에서 터져 나온 홈런은 모두 54개다. 지난해 38경기치는 동안 터진 42개에 비해 29% 증가했다. 그러나 시즌 전 강력한 4강 후보이자 다크호스로 주목받은 KIA는 3개의 공만 담장을 넘기며 팀 홈런 폴찌를 면치 못했다.

김상훈이 2008시즌 첫 홈런의 주인공이 됐지만 이후 시원치 않은 타격으로 장성호와 최희섭이 각각 하나씩 홈런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자연히 장타율은 0.294로 두산에 이어 두 번째다. 안타수도 63개에 불과해 최하위다. 타격 부진만큼 득점 올리기가 쉽지 않아 팀 순위도 뒷자리를 맴돌았다.

만년 최하위 롯데는 무려 12개의 홈런을 날리며 타격 반란을 주도했다.

장타율은 0.460이나 되고, 0.307의 팀타율에, 96안타 등 타격 부문을 쓱쓸이하며 1위까지 치고 올랐다. 10개의 도루에 성공한 롯데는 장타의 파괴력에 빠른 발까지 결여되어 지난해 SK가 선보인 '토털 야구'를 구사하고 있다.



2008 프로야구 부문별 팀타격 순위 (9일 현재)			
팀타율	안타	홈런	정타율
1 롯데 (0.307)	롯데 (96)	롯데 (12)	롯데 (0.460)
2 우리 (0.293)	우리 (88)	우리 (9)	우리 (0.440)
3 SK (0.251)	LG (75)	LG (8)	삼성 (0.369)
4 삼성 (0.248)	SK (73)	현화 (7)	SK (0.364)
5 KIA (0.226)	한화 (72)	SK (6)	한화 (0.341)
6 두산 (0.226)	삼성 (72)	삼성 (6)	LG (0.333)
7 LG (0.221)	두산 (65)	두산 (3)	KIA (0.294)
8 현화 (0.220)	KIA (63)	KIA (3)	두산 (0.292)

37경기서 총 54개 '폭발'...작년보다 30% 늘어

'거포군단' 롯데 12개 1위...KIA 겨우 3개 꼴찌

최악체로 꾹혔던 우리도 장타력을 앞세워 롯데와 선두권을 이루고 있다. 9개의 홈런으로 0.440의 장타율을 보인 우리는 장타력을 바탕으로 찬스 때마다 화끈한 타격을 선보이며 '빅볼'이 이끌고 있다.

빠른 발을 앞세운 두산(팀 도루 18)과 SK(14)의 '발야구'도 여전히 맹위를 펼치고 있지만 시원한 '빅볼'의 매력에 그 기세가 다소 주춤하다. 팀 도루 1위

두산은 한방 부족으로 팀 타율(0.226)과 홈런(3)이 하위권에 머물면서 6연패까지 기록하며 고전했었다.

프로야구 역사상 '빅볼'이 가장 꽂이 피었던 해는 지난 1999년이었다. 삼방울을 제외한 7팀의 장타율은 0.4할을 넘었고, 그 해 8개 구단 평균 팀 장타율은 0.441에 달했다. 1999시즌에 쏟아져 나온 홈런 개수

는 1천274개로 역대 최고였다.

당시 이승엽과 타이론 우즈의 치열한 홈런 경쟁이 펼쳐지면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 연속 장타율이 4할 이상을 넘어서며 화끈한 공격 야구가 유행했다. 그러나 2005년 '지키는 야구'를 앞세운 삼성이 한국 시리즈를 제패한 이후 장타율은 4할대 밑으로 떨어졌다. 찬스에서 작전으로 선취점을 뽑은 뒤

높은 마운드를 내세워 상대 타선을 꽁꽁 틀어막는 '스몰볼'이 주류가 되면서 시원한 한 방보다는 정밀한 타격이 각광받았다.

초반 '빅볼'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은 이제 경우 팀당 10경기치는 상황에서 상대에 대한 분석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턱일 수도 있다.

상대팀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마운드의 투수들 컨디션이 올라오면 '빅볼'의 흐름이 '스몰볼'로 바뀔 수 있다.

화끈한 한방과 정교한 타격을 앞세운 작전 야구, 어느 쪽이 대세가 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컬러의 8개 팀 순위 싸움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우즈 대기록 가능"

"타이거 우즈가 올해 열리는 메이저 대회 4개에서 모두 우승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가능하다"

제72회 마스터스 클럽대회를 휘파람 려고 미국 조지아주 의 한적한 시골 마을 오거스타에 자리잡은 오거스타내셔널 골프장에 모인 세계 각국의 골프 담당 기자들은 10일(한국시 간) 선수들에게 오로

지 한가지 질문만 던졌고 돌아오는 답변

도 한결같이 똑같았다.

이곳에 모인 선수 93명이 세계 최정상급 스타 플레이어인데도 그들에게 "컨디션 어때?"나 "우승할 자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닌 우즈의 그랜드슬램 달성이 가능성만 묻은 '결례'를 감행한 셈이었다.

하지만 내로라하는 선수들도 이런 보도진의 '결례성 질문'에 흔쾌히 대답하는 것도 흔치 않은 광경이었다.

세계랭킹 2위 월 미켈슨(미국)은 "정말 어려운 과업이긴 하지만, 이미 메이저대회 4연승을 해본 타이거라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랜드슬램 달성을 엎에서 지켜보는 것도 영광이 아니냐"고 말했다.

아니 엘스(남아공)는 한술 더 떠 "사실상 우즈는 그랜드슬램을 이미 했다"

면서 "한번 해본 것을 다시 하는 건 쉽다. 더구나 마스터스에서는 타이거의 자

터스 우승을 일찌감치 예상했다.

미켈슨과 엘스는 우즈가 2000년 US 오픈부터 2001년 마스터스까지 메이저대회 4개 대회를 이어온 것과 함께 그랜드슬램으로 인정한 것이다.

작년 브리티시오픈 웹피언인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도 "그랜드슬

램을 이룰 수 있는 선수는 타이거 뿐"이라면서 "그는 혜낼 거"라고 단언했다.

세계랭킹 3위 스티브 스트리커(미국)

역시 "올해 타이거가 그랜드슬램을 이

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린제작을 놓고 다뤄야 할 선수들이 이처럼 꼬리를 내린 가운데 주인공인 우즈 역시 "그랜드슬램? 못할 것도 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여 마스터스에 대한 관심을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우즈는 "내가 가능하다고 말한 이유를 밝히겠다"고 운을 편 뒤 "첫째 나는 이미 메이저대회 4연승을 해봤다. 두번 째, 12년째 투어에서 뛰고 있는 나는 9시즌에서 4승 이상을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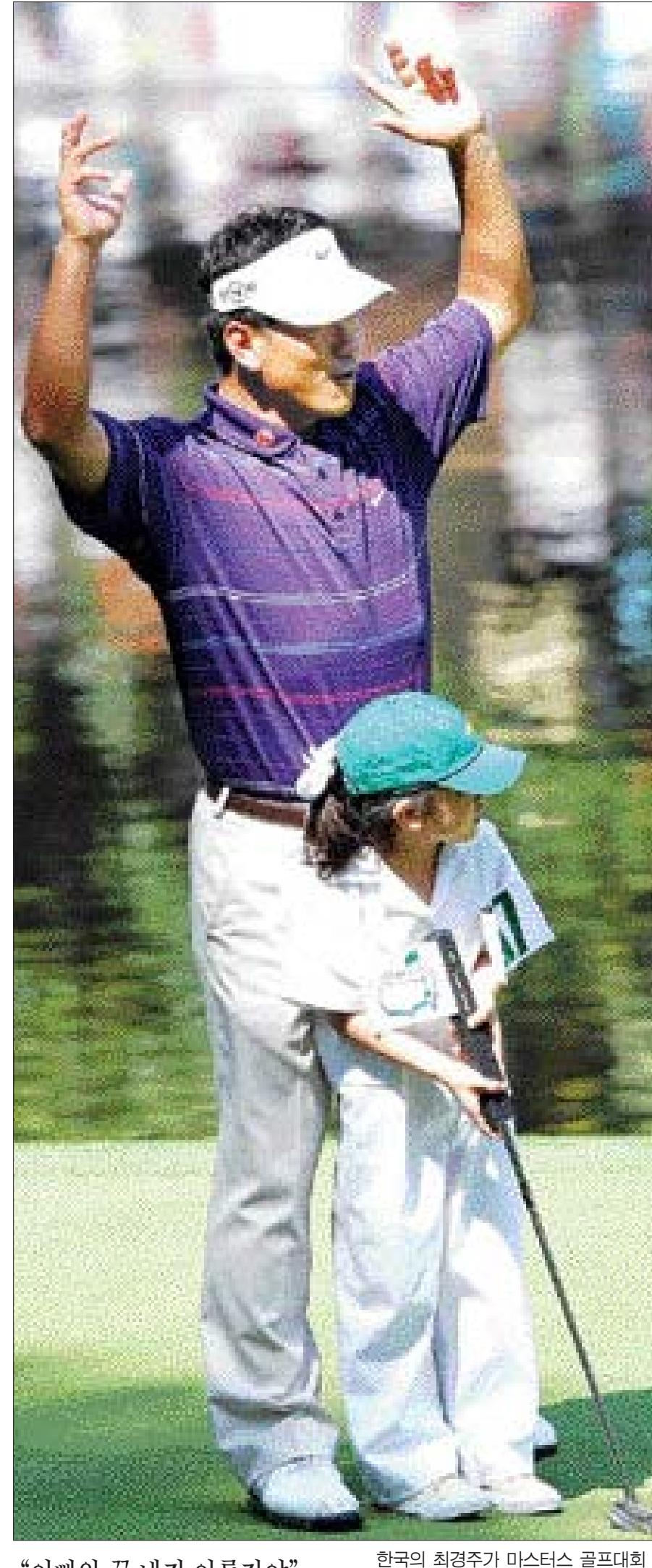
1년에 4차례 우승하는 것은 일도 아닌

데 4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이루는 게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그랜드슬램을 노

리고 있는 우즈는 세계 골프팬들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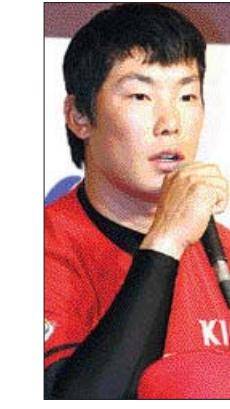
속에 10일 오후 11시45분 티오프한다.



"아빠의 꿈 내가 이룰거야"

한국의 최경주가 마스터스 골프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9일 열린 파3 콘테스트에

서 그의 딸 아만티가 퍼팅을 성공시키자 즐거워 하고 있다.



◀KIA 나지완 VS SK 모창민▶
신인왕 향한
방망이 대결
"양보는 없다"



요한 선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두 리이벌의 첫 대결은 지난달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시범경기에서였다. 이 경기에서 나지완은 3타수 2안타 1타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고 모창민은 부모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3개의 삼진을 당하며 물러섰다. 나지완의 확실한 승리였다. 게다가 나지완은 29일 개막전에서 4번타자로 나서며 개막전에 출전하지 못한 모창민보다 하루 먼저 프로데뷔 신고를 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정식 프로루대 첫 대결에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날 대타로 나온 두 선수는 삼진과 홈런으로 명암이 엇갈렸다. 나지완은 1-1 동점이던 7회 1사 만루 상황에서 대타로 나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고개를 숙였다. 반면 모창민은 10회 2사에서 대타로 나와 프로 데뷔 첫 홈런이자 팀 승리를 굳힌 역전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날은 모창민의 생일이기도 했다.

밤까지 방망이를 휘두른 나지완과 꿈에 서도 방망이를 휘둘린 모창민, 아직은 미숙한 두 신인이지만 한국 최고의 거포가 되는 꿈은 한결 같다. 2001년 한화 김태균에 이어 7년만의 타자 신인왕에 도전하는 두 선수의 선의의 경쟁이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튼의 번트 타구를 날렵하게 잡아 1루에서 이웃시켰다. 이어 오지 오해다에게 중전 안타를 내주고 폭투로 2루까지 진루를 허용했으나 로비 해먹을 9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좌익수 뜬공으로 잡고 고비를 재차 넘겼다.

박찬호는 24개를 던져 16개를 스트라이크로 끊는 공격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다저스는 추가점을 뽑지 못해 3-4로 무릎을 끊어 3연패를 당했다.

**글프·편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제작『록펠러 회원권』비, 상공회비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